

아이종아 경남교육

2021. 10 vol.57

우리의 내일도
스트라이크





우리들의 운동장

“청팀 잘한다!
백팀 잘한다!”

해마다 가을이면 온 마을이 흥성거렸습니다. 운동회가 열렸거든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동네 어른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특식으로 나왔던 급식은 또 얼마나 맛
있었는지!

저마다의 개성으로 반티를 꾸미기도 하고 누가 더 크나 응원기도 목이 쉬어
라 불렀어요. 운동회 날만큼은 짓궂은 장난을 쳐도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께
훈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달리기 경주에서 넘어져도, 줄다리기에 실수로 줄을 놓쳤대도 운
동장에서 함께 즐거웠다는 기억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곳이라면 어
디든 운동장이란 거예요! 미세먼지와 코로나 팬데믹이 기승이어도 말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운동장에서 만나요!
이긴 팀, 진 팀 없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기억을 쌓아 여러분만의 운동장
을 추억하길 바랍니다.

Contents

2021. 10 vol.57



COVER STORY

25년 만에 전국 규모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대회에서 우승한 마산고 야구부 포수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국은 물론 지역에서도 2인자로 평가받던 마산고는 이번 대회에서 강호들을 차례로 꺾고 정상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선수들 스스로 자신의 기량이 어떤지 알기에 더욱 열심히 훈련한 것이 우승 비결이라고.



아이좋아 경남교육 앱 서비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검색 뒤 다운로드 하시면 앱으로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보실 수 있습니다.

06 꿈이 자라는 배움터

- 함양 서상초 전교생이 만든 '꿈돌이 동화책'
- 동영상으로 어르신들께 책 읽어드린 창원 삼계중

18 정책을 만나다

- 경상남도교육청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

발행일 2021년 10월 1일
발행인 교육감 박종훈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Tel. 055) 278-1784
편집인 홍보담당관 김태균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문용희, 주무관 강동훈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경남신문사

14 공감 토크

- '별·다·줄' 신조어와 언어생활

25 찰칵

- 운동회 어제와 오늘

28 내가 가꾸는 꿈

- 마산고 전국 야구대회 25년 만에 우승
- 양산여중 전국 창업 발명대회 최우수상
- 창원 웅천고 학생 3명 UCC 상금 기증
- 미래직업- 반려동물행동교정사

42 환경이야기

44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

- 장 프랑수아 밀레-만종

46 건강 토크

- 요잠혈

48 우리가 알리는 도정 소식

- 경남역사이야기- 진주남강 유등축제의 유래는?

50 우리말 나들이

- 토박이말 나들이
- 일본어식 용어 이렇게 바뀌요

52 심표와 느낌표

- 다독다독- '노력의 기쁨과 슬픔' 등
- 친구야, 영화 보자- 천상의 소녀
- 문화가 있는 날
- 여행- 은빛 물결 출렁이는 창녕 화왕산

62 의회는 지금

- 경남도의회 장규석 의원 인터뷰

64 도란도란

- 독자기고, 독자후기, 날말퀴즈



우리의 상상력이 동화책이 되었어요!

함양 서상초 전교생이 만든 '꿈들이 동화책'

함양 서상초등학교에서 특별한 동화책이 출간됐다. 바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꿈들이 동화책'이다. 꿈돌이는 함양초 학생들을 부르는 애칭으로, 동화책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이야기들과 그림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한다. 어떤 동화가 담겨 있는지, 어떻게 해서 동화책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알아보려 함양 서상초를 찾아갔다.



기발한 이야기가 가득한 동화책

오리 삼형제 '줄리'와 '출리', '몰리'는 놀이동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각기 개성이 다른 형제들은 표정부터 다르다. 줄리는 기대하는 표정이고, 출리는 의욕이 넘치는 표정이다. 몰리는 귀찮은 듯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리 삼형제는 부지런히 오리걸음으로 놀이동산을 향해 나아간다. 가는 길에 '백종원' 선생이 추천한 '연못 식당'이 나타나자 식사도 한다. 다이어트 중인 줄리는 나뭇잎을 먹고, 몸짱이 되고 싶은 출리는 고단백질인 개구리를 먹는다. 단짠단짠한 맛을 좋아하는 몰리는 소금쟁이를 소금에 찍어 야무지게 입에 털어 넣는다.

놀이동산에 도착한 오리 삼형제는 신나게 놀이기구를 탄다. 그러다 아기 새 '경매'를 만난다. 경매는 오리를 잡아먹는 새의 새끼라서 보자마자 도망가야 한다. 하지만 부모를 잃어 허염없이 울고 있는 경매를 보자 마음이 약해진 삼형제는 경매의 부모님을 찾아준다.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간 경매는 행복한 표정이다.



저희가 만든 동화 '새로운 이야기(NEW BIRD STORY)'로 많은 사람이 서로 돕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6학년 조준혁

1년 후 바다로 휴가를 떠난 오리 삼형제는 바닷가의 깡패 갈매기 4형제의 공격을 받는다. 도망가려 했지만 힘이 약한 오리 삼형제에게는 역부족이다. 위협에 처한 그때 1년 동안 힘이 강해진 경매가 나타나 오리 삼형제를 구해준다. 그리고 경매의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줄리와 출리, 물리와 경매는 '행복이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동화의 제목은 '새로운 이야기(NEW BIRD STORY)'다. 6학년 강하연, 김우준, 유다인, 조준혁 학생이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도 그렸다. '꿈들이 동화책'에는 '새로운 이야기' 이외에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참새가 다쳤어요!'와 약속 지키기의 중요성을 담은 '약속을 어긴 돼지' 등 각 학년 별로 만든 총 6편의 동화가 실렸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동화를 만들어 자랑스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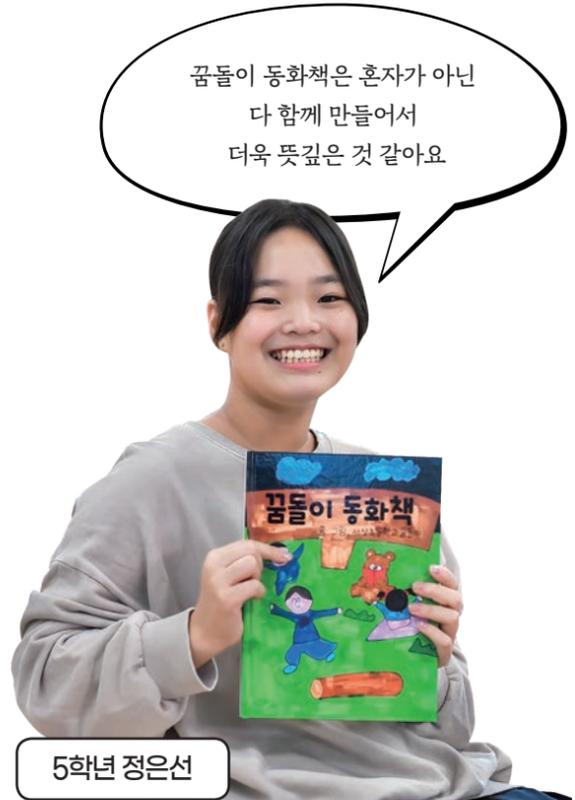
6학년 최두나

연극 수업 중 발견한 학생들의 상상력

동화책 만들기 아이디어는 윤상보 교사에게서 나왔다. 연극 수업을 담당하는 윤 교사는 학생들의 상상력에 놀랄 때가 많았다. 아이들이 작성한 대본에는 다양한 주인공들이 출현했고 주제 또한 독특했다. 선입견이 없고 생각이 자유롭다 보니 상상력 풍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학생들과 함께 동화책을 만들어 보자고 학교에 제안했다. 학생들이 동화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력이 더욱 길러지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사들도 윤 교사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서상초 동화책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작됐다.

전교생이 함께 만든 '꿈들이 동화책'

'꿈들이 동화책'은 전교생 32명이 모두 참여해 제작됐다. 학년별로 동화 1개씩 만들었다.



꿈들이 동화책은 혼자가 아닌 다 함께 만들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아요

5학년 정은선



반 학생들은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중 모두가 재미있어 한 이야기를 주제로 선정했다. 정해진 주제에 대해 아이들이 돌아가며 이야기에 살을 붙였다. 작가가 여러 명이다 보니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다. 그리고 동화책에 들어갈 그림도 서로 도와 직접 완성했다. 전교생 모두의 생각과 노력이 담긴 동화책이 완성된 것이다.

동화책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6학년 최두나 학생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동화를 만들어 자랑스럽다"고 했고, 5학년 정은선 학생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다 함께 만든 동화라 뜻깊다"고 말했다. '꿈들이 동화책'에는 감사·양심·인내·사랑·신뢰 등의 교훈이 담겨 있다. 아이들은 동화를 만들면서, 완성된 동화를 서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교훈의 의미를 알아간다.

창원 삼계중 인문·독서 동아리

조용한 공간에 또랑또랑 책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딩달아 흰머리 지긋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가에도 웃음이 서린다.
옛된 목소리의 주인은 화면 속 교복 입은 학생들.
학생들은 어떻게 낭독 봉사를 하게 됐을까?



동영상으로 어르신들께 책 읽어드려요

삼계중 책벌레들, 요양원서 낭독 봉사
삼계중은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13세~18세 청소년들의 자기 주도적 독서습관 형성과 학교급별 독서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는 교내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직업 탐색 독서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삼계중은 일반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책 읽어주세요' 등 세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책 읽어주세요'라는 낭독 봉사는 사업의 필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삼계중 도서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 2회 낭독 봉사를 하고 있다. 창녕과 창원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들려드리기 위함이다. 코로나19로 대면 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낭독하는 영상을 찍어 메일로 전송한다. 직접 반응을 볼 수는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좋아라 하셨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단다.



2학년 오가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봉사시간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니까 별생각 없이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책 읽어드린 영상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셨다고 전해 들으니까 뿌듯했고, 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뜻깊었어요.”



1학년 심다혜

“저는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지만 낭독을 많이 연습해서 떨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어요. 저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코로나19로 답답한 건 저희뿐만이 아니란 걸 잘 알아요. 저희 봉사활동을 통해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서 성취감이 있고 뿌듯해요.”

독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학생들

공자는 누구나 제자로 받았지만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려는 자는 제자로 삼지 않았다. 독서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물음에 답하게 한다. 또래와 토론을 거치면서 서로 성장한다.

삼계중의 연간 독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학생들과 함께 만든 것이다. 교사가 밑그림을 그리면 학생들이 활동방향과 읽고 싶은 책 등을 정했다.

올해 주제는 '세계의 시민이 된다는 것' 학생들은 5월부터 페미니즘과 공유경제, 인종차별, 폴레랑스, 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독서토론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미얀마 교민들이 창원역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여해 공유마켓 수익금 2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2학년 김호진

“미얀마 소식을 뉴스에서 들었지만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가까이서 집회를 하고 계셨던 것도 몰랐는데 집회에 참여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실상을 알게 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요즘 탈레반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2학년 장서현·회장

“동아리 활동으로 읽었던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공유훬, 윤예림 저)’라는 책이 기억나는데요. 그동안 저희는 봉사활동과 독서토론으로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생각을 하면서 시민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학교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 갈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별걸 다 줄이는 신조어,
이대로 괜찮을까**
- 신조어와 언어생활 -

ㅋㅋㅋ
ㅋㅋㅋ

1446년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어 반포했다. 그로부터 57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도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가 있다. 바로 '신조어'다. 신조어로 대화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중학생과 신조어를 잘 모르는 국어 교사가 마주 앉아 신조어와 언어생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I N T E R V I E W

● 전현주(김해 율하중 국어 교사) ● 심민지(김해 율하중 3) ● 김지훈(김해 율하중 3) ● 이우솔(김해 율하중 3)

“신조어도 소통을 위한 언어인 만큼 때와 장소에 맞게 사용해 주세요.”

“신조어가 아무리 재미있어 보여도 뜻은 제대로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신조어 사용도 알잘딱깔센!”

“신조어는 친밀감과 동질감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신조어

언어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과 SNS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조어가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학교 교실에서 신조어는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심민지 선생님이나 어른들과 대화할 때는 그래도 신조어를 안 쓰려고 하지만, 친구들과끼리 대화할 때 줄임말이나 신조어를 많이 써요. ‘스터디 카페 갈래?’라고 물을 때도 줄여서 ‘스카 갈래?’라고 한다든지, 대부분 줄임말 형태로 많이 써요.

김지훈 물론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쓰지만 인터넷 방송이나 SNS에서 줄임말을 많이 써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란 뜻의 ‘알잘딱깔센’이라든가 ‘열받네’를 ‘깡받네’로 쓰는 것처럼 인터넷 방송에서 쓰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이우솔 친구들과랑 마주 보며 대화할 때보다는 온라인에서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글자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줄임말로 쓰는 게 편해서 신조어를 쓰는 편이에요. 평소 쓰는 언어라도 온라인에서는 줄임말을 쓰거나 초성만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진짜?’라는 뜻의 ‘레알?’도 ‘ㄹㅇ’이라고 초성만 써서 소통해요.

전현주 교사 저도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신조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신조어가 많아요. 친구들이 말한 ‘스카’나 ‘알잘딱깔센’은 저도 처음 듣거든요. 아이들이 쓰는 신조어가 비속어나 혐오 표현은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나 교사 앞에서는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신조어를 쓰는 이유



알면 인싸(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가 되지만 모르면 문짚(대중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 되는 별다줄(별걸 다 줄이는) 신조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민지 아무래도 10대 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쓰지 않을까요. 인터넷 방송이나 SNS를 접할 기회가 많다 보니, 신조어를 빠르게 많이 접하기도 하고요.

김지훈 다른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유행하는 신조어를 함께 쓰는 것이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다른 세대는 모르는 우리 세대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우솔 저는 인터넷 방송을 잘 보지 않지만, 친구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전현주 교사 신조어는 아이들의 공감대 형성과 집단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은어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신조어가 10대 만의 은어가 됐다가, 신조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역할을 상실하고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나는 거죠.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서 다른 세대가 따라잡기는 힘든 것 같아요.



신조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신조어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10대들의 신조어가 문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전현주 교사 대체로 신조어들이 직관적으로 뜻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집단 안에서 친밀감을 과시하려다 보니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우솔 신조어를 너무 과하게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우리끼리 재미있게 쓰고 동질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김지훈 신조어를 쓰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로 대화할 때 신조어를 쓰다 보니, 친구들이 불편을 느끼면 쓰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쁜 신조어는 걸러지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도 불편한 신조어를 쓰면 댓글로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요.

심민지 맞아요. 저도 교실에서 불편한 신조어를 들으면 쓰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저 역시 혐오 표현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가끔 신조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쓰는 친구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져요.

전현주 교사 그래도 아이들 스스로 부적절한 신조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제재를 가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신조어도 소통과 이해를 위해 필요한 언어잖아요. 때와 장소에 맞는 언어생활로 신조어가 10대들만의 긍정적 인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등하굣길 안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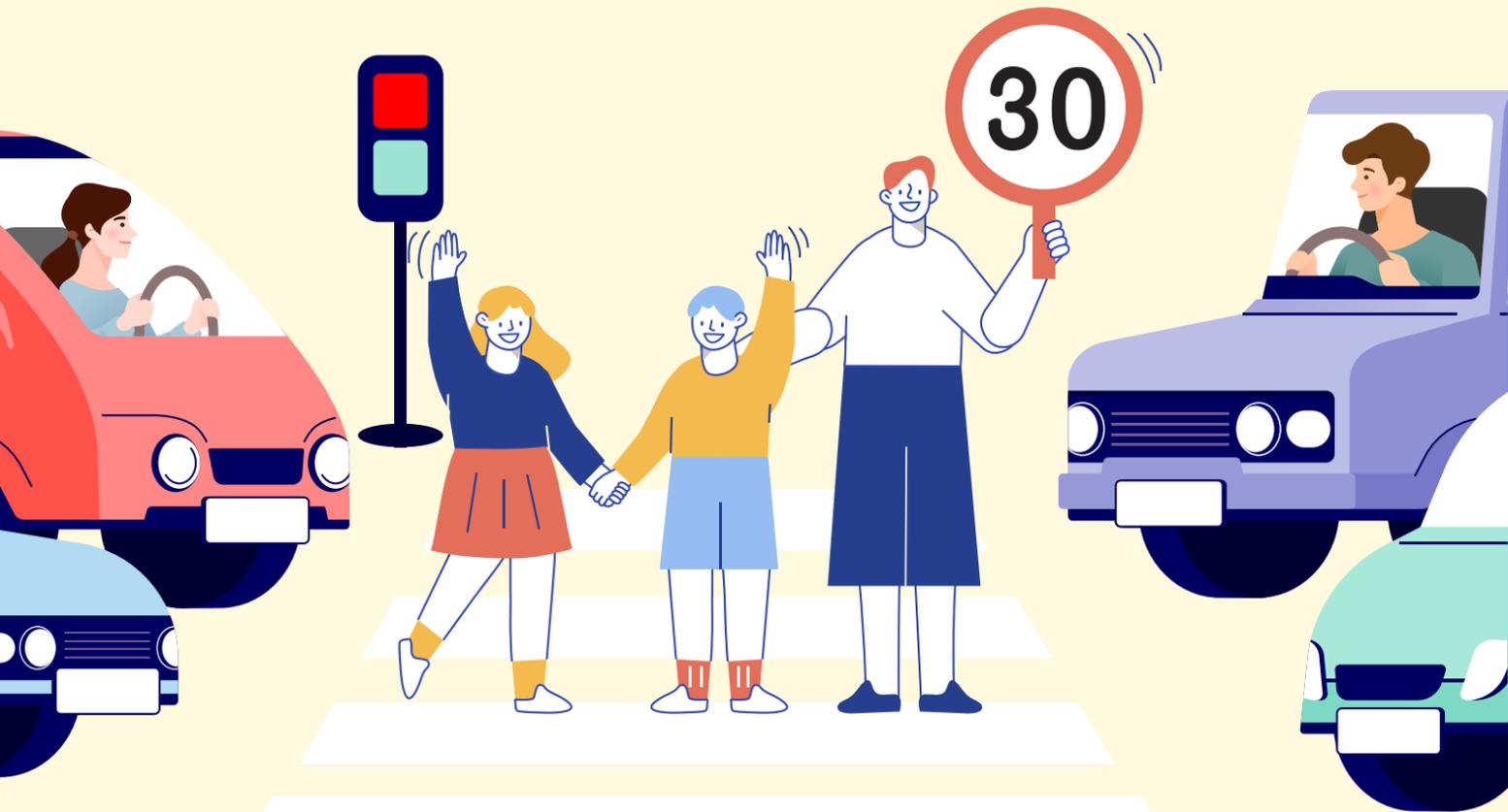
안전 아이로

통학안전시스템

2020년 3월 2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다. 이 법들이 시행된 지 약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보호자로서는 등하굣길 안전을 늘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개발해 9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안전아이로’는 무엇인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가 뭐예요?

‘안전아이로’는 ‘안전한 아이로 키운다’와 ‘안전한 통학로 도로명’ 개념으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과 학생들이 느끼는 위험 요소를 조사해 전자지도 형태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경남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 정문 기준 300m 반경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 횡단보도 및 신호기, 무인단속기 등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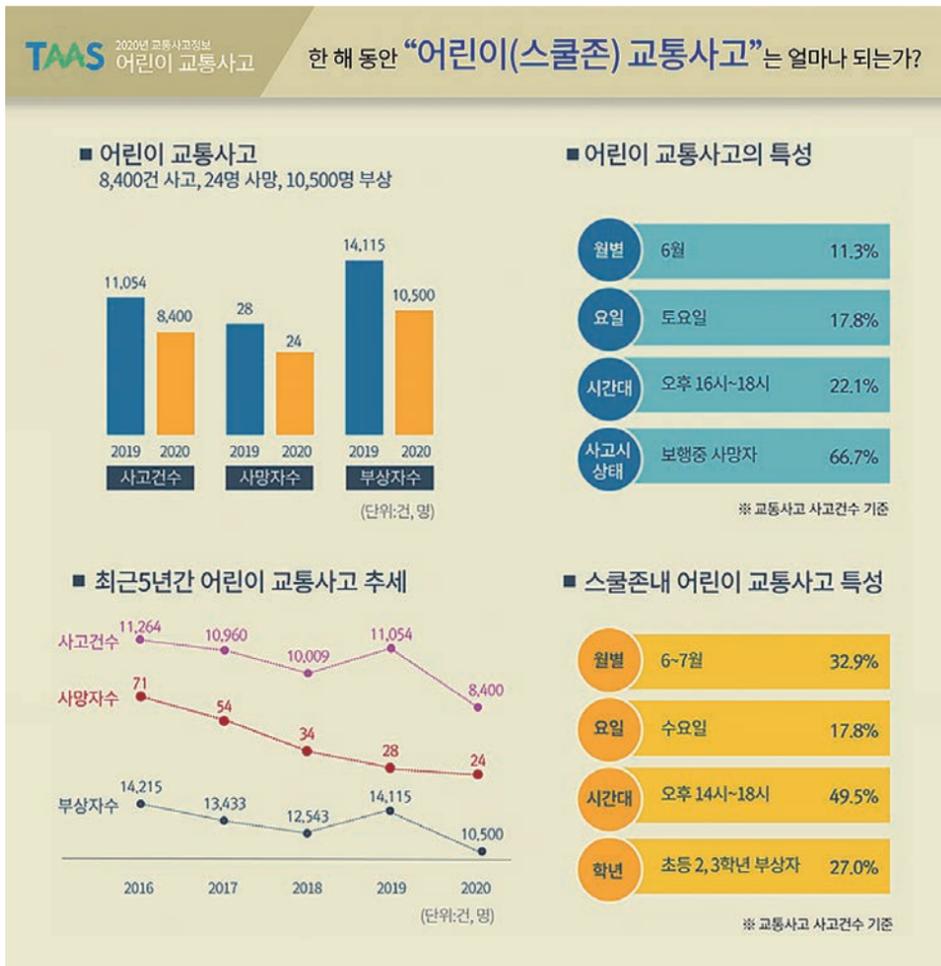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으로 많이 알려진 이 두 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확충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관해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지칭한 것으로, 이미 존재했던 법안에 조항을 신설·개정해 책임을 무겁게 한 것입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각 지방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신호등과 안전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교통사고 특례법 3조 1항)를 위반한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아이로' 왜 만들었을까요?

2020년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8,400건, 24명의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고, 1만 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는 어떨까요? 2020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3건, 50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는 수치만으로 보면 큰 수치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곳입니다. 운전자는 이 구역에서 운전을 더욱 조심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는 구역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5%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통학로에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들은 여러 기관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어 통학로 교통안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정보를 찾기 어려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함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며,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지도 형태의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전아이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21년 1월부터 각 시·군의 지역 정보를 잘 아는 교직원 62명과 함께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원들이 각 학교의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와 협업해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교통안전 위험 요소,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주로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를 전수 조사해 지도화했으며 이 데이터를 전자지도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전자지도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초등학교의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가 학교 주변을 직접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등 자료를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전아이로'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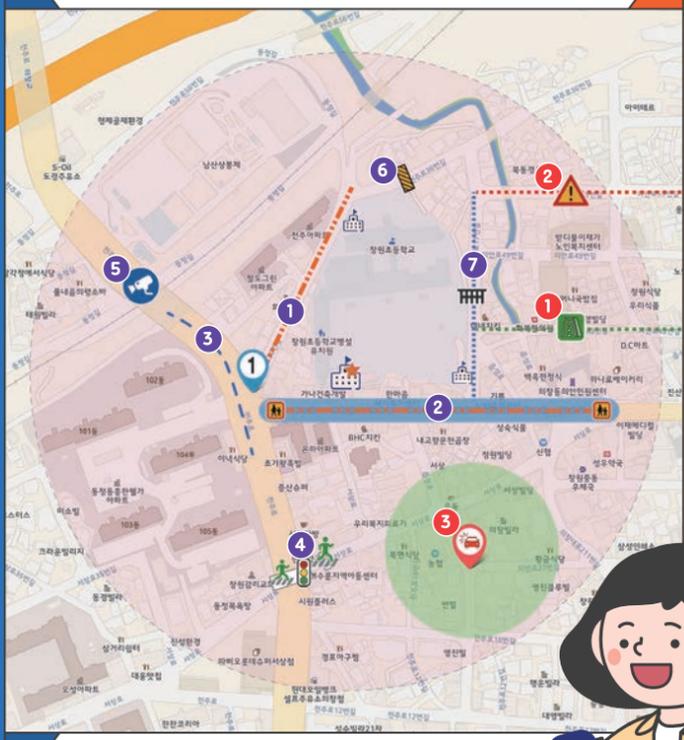
'안전아이로'에서는 찾고자 하는 학교를 검색하면 해당 학교의 정문 반경 300m 범위에 존재하는 교통안전 시설물, 위험 지역,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보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어디에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단속기와 과속방지턱 같은 과속 방지시설이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ON/OFF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보고 싶은 교통안전 시설물들을 지도에 표시해 줍니다.

학교 주변 교통안전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안전아이로'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위험한 길을 표시해 주었으며,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각 학교에서 조사해 위험 지역으로 표시했습니다. 각 위험 요소를 클릭해보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사고 지점과 사고 유형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정보와 연계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보

- 1 주요통학로 보행자 동선
- 2 어린이보호구역
- 3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 4 횡단보도 신호기
- 5 무인단속기
- 6 과속방지시설
- 7 방호울타리



위험지역 정보

- 1 보차도 미분리
 - 2 위험요소
 - 3 사고다발지역
- 보행어린이사고
 - 스쿨존내어린이사고
 - 자전거사고
 - 사고지점



'안전아이로'에는 통학로와 관련해 위험 요소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학생, 학부모, 도민 모두 자유롭게 교통안전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등록된 의견은 지자체 등과 협의해 통학로를 안전하게 개선해 나가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의 학교장이 직접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 의견 등록 방법

학교 주변 통학로에 위험 시설물이 있나요? 안전아이로에 등록하여 주세요.

! 의견 등록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 교통안전의견

1. 의견 등록 할 위치를 지도에서 선택
2. 의견에 대한 회신받기 위한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입력
3. 의견 내용과 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안전아이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 학교 주변에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와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가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 경남도청(각 시·군 지자체), 경남경찰청(시·군 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게는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을 분석·개선하는 정책자료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와 학부모에게는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공공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어 모든 기관이 함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위험 지역을 확인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통안전대책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아이로'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접속하나요?

통학안전시스템 '안전아이로'는 9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방법1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기
 인터넷 검색창에서 '안전아이로' 검색

방법2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기
 주소창에 iro.gne.go.kr 입력하기

방법3 아이톡톡에서 접속하기
 아이톡톡 첫 화면에서 아이콘 클릭! 

방법4 QR코드로 접속하기
 안전아이로 검색해보세요!
 어떤 학교가 궁금하신가요? 검색창에 학교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안전한 통학로 경남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의 교통안전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나씩 개선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오갈 수 있는 안전한 아이들의 길 '안전아이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모여서 아이들의 행복한 등하굣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운동회 어제와 오늘

가을 운동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옛말이 됐다.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순 없지만 이어달리기, 박 터뜨리기, 줄다리기 등
 추억은 가을만 되면 다시금 떠오른다.
 청명한 가을보다 더 빛났던 그때 그 모습을 사진 위로 덧그려 본다.



출처: 창원교육지원청 기록관, 양산 오봉유치원, 함안 칠성중학교



1989년 합포초등학교 박 터뜨리기



1988년 월포초등학교 열띤 응원



2021년 오봉유치원 작은운동회 체조



1994년 하천초등학교 가을운동회 어머니와함께



1988년 용원초등학교 부채춤 공연



2021년 칠성중학교 단체줄넘기



마산고 야구부
감독도 말릴 정도로 구슬땀 훈련
25년만에 전국 대회 우승 결실 맺다



광복절인 지난 8월 15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마산고등학교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것.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이하 협회장기)는 대통령배와 청룡기, 황금사자기, 봉황대기와 함께 전국 5대 메이저 대회다. 마산고는 1994년 제46회 화랑대기에서 창단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1996년에도 화랑대기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그 후 25년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다. 마산고가 오랜 부진을 털어내고 전국 대회를 제패한 얘기를 들어봤다.

BASEBALL



우승 후보 차례로 꺾고 이번 연출

대회에 앞서 마산고를 우승후보로 꼽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마산고는 고교야구 강호들을 차례로 꺾으며 정상에 올랐다. 특히 8강전에서는 우승 후보 덕수고를 2회 초에만 9점을 쓸어 담으며 13:6으로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고, 결승에서는 고교 최고 유격수 김도영이 이끄는 광주 동성고를 9:3으로 제압했다.

마산고 고윤성 감독은 “상위타선이 터지지 않을 때는 하위타선이 해결했고, 하위타선이 침묵할 때는 상위타선이 살아났다”며 “팀 전체가 고르게 활약한 덕분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포수가 도루하고, 4번 타자가 번트를 대는 등 1점이라도 더 얻기 위해 선수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꾸준한 노력이 2등에서 1등으로

협회장기 우승으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마산고는 처음부터 강호의 반열에 있었던 건 아니다. 마산고는 전국은커녕 마산 지역에서도 용마고에 밀린 2인자 신세였다.



지역에서 뛰어난 기량을 뽐내던 중학교 선수들은 마산고가 아닌 용마고로 진학했다. 사실상 용마고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마산고에 입학했다.

이상근 교감은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마산고가 아닌 용마고로 진학한 사실을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시절 함께 운동했던 애들이라 서로의 실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수들이 더 열심히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진이 오히려 말릴 정도로 열심히 훈련했다. 선수들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한 덕분인지 현재 마산고에는 전국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선수가 많다.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자랑하는 안현민 포수와 공수 모두 뛰어난 신용석 포수, 거포 3루수 권우재 선수, 차세대 에이스 김관우 투수, 철벽 불펜 서현우, 전호진, 송진욱, 권진, 하상범 선수 등을 보유하고 있다.



야구가 인생의 교훈이 되길

학생들은 저마다 프로 선수와 대학 진학을 꿈꾸며 열심히 노력한다. 고윤성 감독은 선수로서 야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학생 신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감독은 “아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성장해야 할 시기다. 운동할 때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 운동하고, 교실에서는 학생답게 공부도 하고 다른 학생들과도 잘 지내야 한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차근차근 성숙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3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경험으로 졸업 이후의 인생도 열심히 살아가는 마산고 선수가 되길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송진욱 학생(투수, 3학년)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개인 성적이 나오지 않아 아쉽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디그롭 선수 같은 뛰어난 선수가 되겠습니다.



류민우(외야수, 3학년)

전국 대회 우승 멤버가 되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후배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돕겠습니다.



김관우(투수, 2학년)

내년에도 우승이라는 성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후배들을 잘 이끄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신성호(내야수, 2학년)

잘 준비해 힘이 좋고 빠른 선수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성 바른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내야수, 3학년)

3년 동안 좋은 감독님과 코치님, 동료들과 함께해 기뻐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마산고 파이팅!





양산여중
창업동아리
YGSC

뉴노멀 시대의 예비창업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보자”라는 김슬아 대표의 생각에서 시작된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마켓컬리’는 지난해 9,5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유기농 월경용품 구독서비스 ‘해피문데이’는 김도진 대표가 2016년 ‘갈창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창업해 현재 정기구독자 수가 10만 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창업자가 여성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옮겨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양산여중의 작은 부실에서 날마다 아이디어가 한 뼘씩 자라고 있다. 제2의 김슬아나 김도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 창업할 나만의 브랜드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란다.

2021년
창업가 정신
거점학교 선정



양산여중은 올해 창업가 정신 거점학교로 선정돼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원대 창업지원센터 등 경상남도교육청 창업 교육지원단과 연계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양산 진로교육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과 협력해 창업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올해 개설된 창업동아리 ‘YGSC’는 이러한 창업생태계 구축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총 20명, 5개 팀으로 구성된 소수정예지만 제14회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에서 2명의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21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무려 두 팀이 경상권역 대표로 참가해 본선을 치렀다.

ICT 융합 점자 전자출입명부 상하이동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과학부문 양산여자중학교 2학년 박다원 지도교사 김범직

1. 제작동기
사회는 편리한 시스템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단정 지어 버린다. ‘왜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소유자를 편리한 시스템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인들의 경험과 인터넷의 사례를 통하여 키오스크를 구상하게 되었다.

2. 작품 내용
“주문 포기하고 돌아갔다” - 비대면 시대, 키오스크·QR코드에 고합된 노인들 키오스크 매장 확대에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소외감’... 정답일까

3. 기대 효과

기초의 키오스크 시스템 도입 단계
차별 구분형식의 동선 해소
키오스크 사용
기입, 이차재 변화된 키오스크 세팅
정기화, 열악한
소수자의 활동 영역

뚜렷한
창업 의식 가진
학생들

한 가지의
사소한 아이디어도
토론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생각하는 힘,
소통의 힘을 기른다

신생 동아리인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이 창업에 진지하게 임하기 때문이 아닐까. 'YGSC'는 'Yongsan Girls Startup Club'의 줄임말이다. 학생들이 직접 지었다는데, 얼핏 단순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창업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엿볼 수 있다.

올해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에서 1학년 학생들은 점자가 있는 페트병 뚜껑을 제안했다. 캔음료에만 식별용 점자가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3학년 김소정 학생은 반려동물 배변처리팩, 2학년 김소정 학생은 ICT 융합 점자 전자출입명부 상하이동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제출해 최우수상인 특허청장상을 받았다.

2학년 한민서 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4만 원의 창업자금을 받고 있다. "대학생쯤 되면 창업을 해볼 거예요. 아직 무엇을 할 건지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따져보고 위험부담이 적은 사업을 시작해보려고요."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사소한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이는 지도교사인 김범직 진로부장이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이유기도 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은 팀에서 먼저 공유·토론 과정을 거치고 동아리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해 피드백을 받는다. 학생들은 전 과정을 매 프로젝트마다 되풀이하며 생각하는 힘, 타인과 소통하는 힘을 기른다.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준
'공공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공공선을 목표로 한다는 것도 특기할 사실이다. 단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만은 아니다. 3학년 윤나경 학생은 '보람'이라고 답했다.

"처음에는 상업적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냈는데 이미 발명되거나 특허 출원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와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많이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지금 매일 점심시간마다 모여 새롭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다. 오는 10월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예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찾아와 일상을 바꿔놓았지만 예비 창업가들의 열정까지 바뀌게 하진 못했다.

YGSC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창의성', 공동의 목표를 위해 문제를 타인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업성', 실패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도전정신' 등을 함양하며 이 모든 역량을 아우를 수 있는 '창업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뉴노멀 시대의 주역이 될 양산여중 창업동아리 YGSC. 이들의 창업가 정신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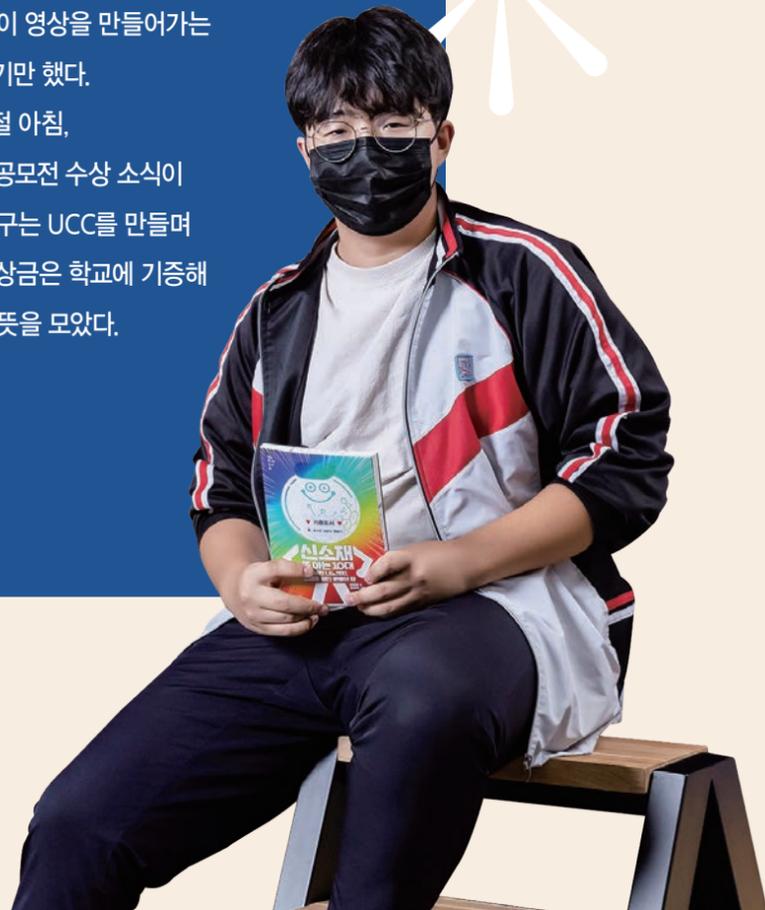
UCC 만들며 추억 남기고,

상금 기증해 이름 남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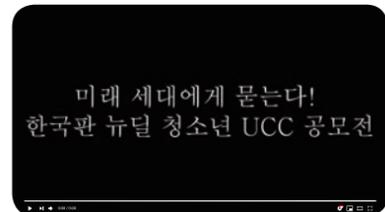
UCC 상금으로 학교에 책 기증한 창원 웅천고 2 조수민, 강준수, 현동기 학생



학창 시절의 작은 추억거리가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다. 세 친구가 모여 같이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저 즐겁기만 했다. 그리고 지난 만우절 아침, 거짓말처럼 UCC 공모전 수상 소식이 날아들었다. 세 친구는 UCC를 만들며 추억을 남겼으니, 상금은 학교에 기증해 의미 있게 쓰기로 뜻을 모았다.



UCC_일상 속에 숨은 K뉴딜



창원시 진해구에 자리 잡은 웅천고등학교. 교내 학습 카페 공간인 '꿈실카페'에 가면 특별한 책장을 하나 만날 수 있다.

진로, 교양, 과학·기술, 인문·사회로 구분된 네 칸의 책장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이 꽂혀 있다. 책장 위에는 '기증도서'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조수민, 강준수, 현동기 세 친구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적혀 있다. 웅천고 졸업생도 아니고, 웅천고를 사랑하는 사업가도 아니다. 바로 웅천고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름이다. 어떻게 학교 안에 학생의 이름으로 기증한 책이 꽂혀 있는 것일까.

치킨 한 마리로 시작된 UCC 공모전 도전

조수민, 강준수, 현동기 세 친구는 웅천고에 입학하면서부터 친해진 사이다. 평범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평소 영상과 편집에 관심이 많아 프리랜서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수민 학생이 잔잔한 일상에 작은 돌을 던졌다.

"제 꿈이 영상 편집자거든요. 관련 분야에 관해 공부하던 중 UCC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력도 키우고 경험도 쌓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같이 도전해 보자고 했죠."

세 친구가 참가한 대회는 예금보험공사와 우리금융그룹,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미래 세대에게 묻는다' 한국판 뉴딜 청소년 UCC 공모전이었다. 공모전에 참가하기만 해도 참가상을 준다가에, 소박하게 치킨 파티를 즐기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갖고 참가를 결심했다.

세 친구가 기획, 촬영, 편집, 녹음, 배우까지 하다 보니 모두 스태프이자 주인공으로 참가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평소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었기에 같이 고민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적용된 일상을 4분가량의 영상에 담아내며 생애 첫 UCC를 완성해 냈다.

강준수 학생은 “UCC를 만들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고, 또 함께 합속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며 첫 작품을 끝낸 소감을 전했다.

추억은 더하고 상금은 나누고

지난 2월 UCC 공모전에 응모하고, 응모 사실조차 잊고 지냈다. 그리고 만우절 아침, 거짓말처럼 공모전 우수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치킨 한 마리 먹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고등부 우수상 수상과 100만 원의 상금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돌아왔다.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시기였지만, 세 친구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시상식에 참가했다. 짧은 학창 시절 머리를 맞대고 만든 UCC와 그 결과로 받은 우수상, 함께 참석한 시상식의 추억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터였다.

현동기 학생은 “친구들과 시상식에 간 경험도 새로웠고, 경남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수상해서 무척 기뻐다”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조수민 학생은 “치킨 먹으려고 시작된 팀이었는데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 기쁘고, 편집자의 꿈에 더욱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됐다”라고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상금을 받은 세 친구는 고민에 빠졌다. 치킨을 사 먹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고, 셋이서 처음으로 결실을 일궈낸 만큼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 의견을 모은 결과 동물 기부 팔찌와 백혈병 기부 팔찌를 하나씩 나눠끼고, 나머지 상금은 모두 학교에 기증했다. 세 친구는 학교에 이름을 남기게 돼 뿌듯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으며 입을 모았다.

“후배들이 저희가 기증한 책을 읽으면서 꿈을 찾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 친구는 처음으로 도전한 UCC 공모전에서 수상한 기쁨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해군 UCC 공모전과 학교폭력 예방 UCC 등 셋이서 함께 영상을 만드는 즐거움에 푹 빠졌다. 실력에 경험까지 더해지니, 좋은 결과도 뒤따른다고.

친구들과 함께 UCC를 만들며 조수민 학생은 ‘영상 편집자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요리사가 꿈인 강준수 학생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요리의 꿈을 펼치기 전에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현동기 학생은 몇 번의 UCC 촬영을 통해 영상과 편집의 매력을 알게 돼 영상 쪽으로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꿈이 다르면 뭐 어쩐가. 세 친구는 함께 한 편의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완성하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학창 시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



UCC_2021 학폭 멈춰



반려동물과 사람, 공존을 꿈꾸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반려동물은 행복한 순간에도 함께하며, 슬픈 순간에도 함께해 위로가 되어 준다.

하지만 반려동물도 우리처럼 행복하기만 할까? 우리가 사는 도시는 동물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일지도 모른다.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마음껏 짖어댈 자유도 제한된다. 또한 반려동물이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적 행동도 발생할 수 있다. 해결방법은 없을까? 반려동물행동교정사와 함께라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공존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봤다.

> 반려동물행동교정사란?

반려동물이 문제 행동(공격적 행동, 아무 곳에서도 배설, 주인과 분리불안증 등)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고 교육하는 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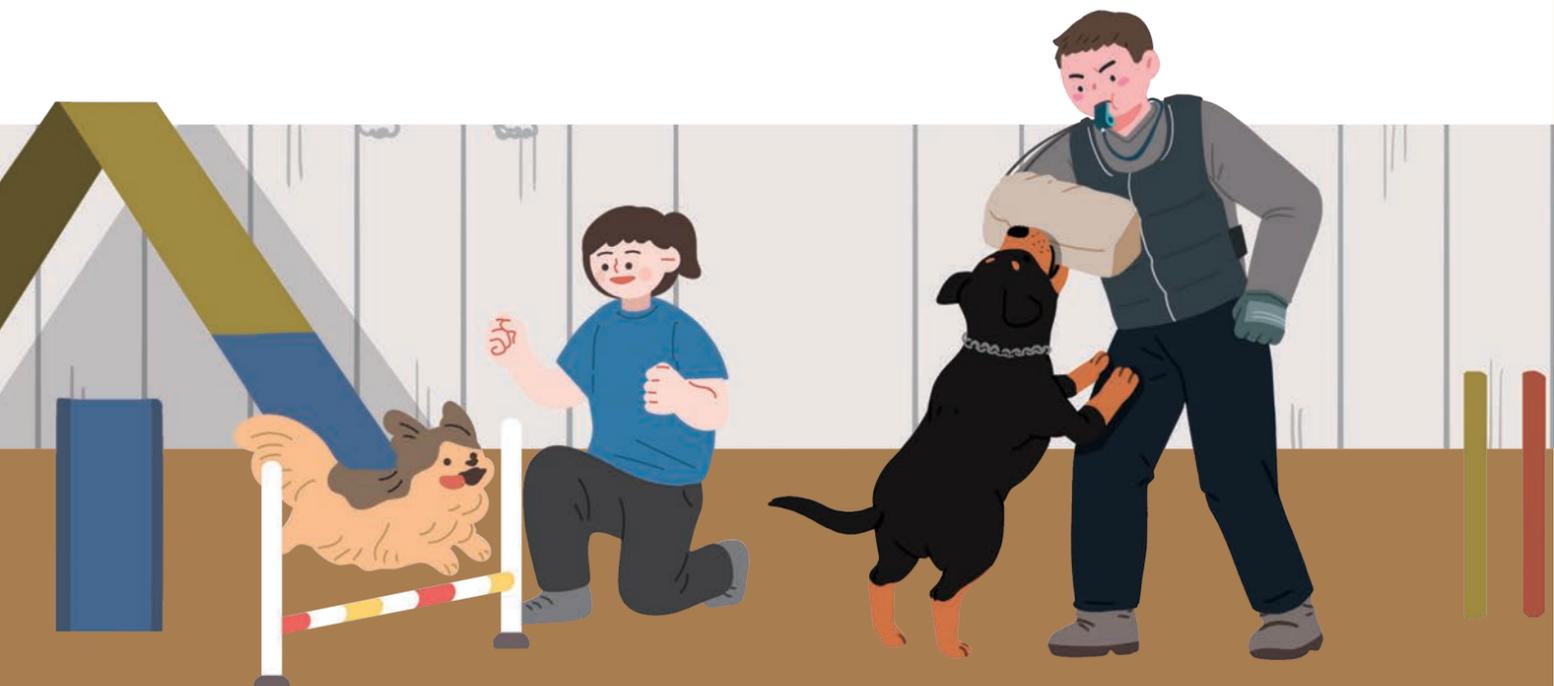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반려동물의 주인과 대화를 통해 원인을 찾은 다음 반려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파악해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찾는다. 주로 반려동물훈련소나

훈련 학교, 반려동물 호텔, 동물병원 등에서 근무한다.

>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반려동물행동교정사로 일하려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반려동물행동교정사와 관련된 국가 자격은 없고, 민간등록 자격이 있다.

민간등록 자격이다 보니 발급기관과 교육기관을 꼼꼼히 살펴 취득해야 한다.



검증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론 위주의 강의보다 현장학습 위주의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학 관련 전공으로는 애완동물과나 동물산업과, 동물자원학과가 있다.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시장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반려동물행동교정사 일자리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 향후 전망은?

2020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돌파

참고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커리어넷 미래직업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 애견방문훈련센터 '토닥토닥'

전문가 인터뷰



김현미 대표
애견방문훈련센터 '토닥토닥'

반려동물행동교정사에게 필요한 능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행동교정을 진행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갑작스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하게 짖거나 반려동물행동교정사의 교육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물론 침착성, 순발력 등의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함께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도 올바른 지식과 훈련방식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일을 하다 보람을 느낀 때가 있다면?

저는 부산과 경남 지역을 다니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 후 반려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보호자들이 기뻐하실 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거나 현관 앞까지 나오셔서 배웅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두세 달 뒤 반려견의 근황을 전하며 고맙다고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은데 제 역할을 해냈다는 뿌듯함과 함께 보호자들의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행동교정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조언한다면?

요즘 TV나 온라인 매체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반려견지도사나 반려동물행동교정사의 길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일을 해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진짜 이 직업을 잘 해낼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고,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춰서 행동교정사라는 직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훈련할 때는 끈기와 인내심이 정말 강해야 합니다. 동물이기에 사람처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없고, 오래된 습관으로 생긴 행동은 단순히 교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분명 반려견 보호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환경이야기

지구를 위한 날! 달력에도 안 나오는 날!
우리 마음으로 새기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10 OCTOBER 2021

- 10. 1. 세계 채식주의의 날
- 10.13.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
- 10.16. 세계 식량의 날



이날을 기억해요

세계 채식주의의 날(10.1.)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 기아 해결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 국제 채식주의 연맹(International Vegetarian Union)이 제정 매년 인간의 음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170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방목으로 인한 산림 파괴를 줄이며, 방대한 양의 사료용 곡물을 줄임으로써 기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치를 내걸고, 이날만이라도 인류 전체가 채식주의 하자는 뜻으로 제정되었다.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10.13.)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감소를 촉구하기 위해 유엔총회에서 지정한 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가뭄, 홍수, 눈사태 등 자연 재해를 포함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연간 16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매년 새로운 주제를 통해 세계 자연재해를 피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재해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도록 촉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에플다이어트 실천해요

9·10월은
'종이타월 대신 손수건 사용' 하는 달!
**종이타월로 닦지 말고,
손수건으로 닦으세요.**



교육 현장의 실천 활동 - 우리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칠천초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환경 동아리 실천 활동

거제 칠천초 교사 최규완

칠천초등학교 환경 동아리 아이들은 양서류를 구하는 따뜻한 실천 1004운동을 올해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둘레의 소중한 생물들, 특히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양서류들을 위한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에 있는 작은 습지를 보호하고, 양서류들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 활동, 보호 팸말 제작 및 설치, 양서류 구출 활동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둘레 생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끊임없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산내서여고 생태 환경 동아리 'CURIOUS' 허브 식물 분양

마산내서여고 교사 김중현

마산내서여고 생태환경동아리 CURIOUS 학생들은 직접 디자인한 지구사랑 조끼를 입고 요일별로 조를 짜서 재활용 분리수거와 학교 주변 환경정화활동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에 솔선수범 했습니다. 또한 '1학년 1화분 전달하기' 활동으로 모든 교실에 허브 식물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허브 식물의 줄기를 잘라 페트리 접시에 뿌리내리게 하고 있는데 페트리 접시에 사용하는 거즈는 마스크에 있는 필터를 잘라 재활용했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컵을 이용해 뿌리가 내린 허브를 어느 정도 자라게 해 화분에 옮겨 심고 있습니다. 아직 3학년 교실에만 허브가 있지만 올해 안에 모든 교실에 화분을 전달해 허브향이 가득한 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산초 3학년 '지구를 지키는 친구들(지지프렌드)' 텃밭 가꾸기

통영 도산초 교사 김영란

지난 4월 텃밭에 방울토마토, 오이, 고추를 심어서 제법 쏠쏠한 간식이 됐습니다. 급식소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긴 적도 많았는데, 우리 텃밭에서 나오는 오이는 특별했습니다. 먹으면서 맛을 오래오래 생각하고 글로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텃밭 옆 재배 상자에 심었던 채송화, 봉숭아, 접시꽃, 과꽃 등은 생각만큼 자라지 못했습니다. 7월에는 알뜰시장을 열었는데요. 어찌나 신나는 시간이었는지, 우유팩 뜯어서 말리기는 1년 내내 실천하고 있고요, 만들기 잘하는 3학년 친구들은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하기도 했습니다. 곧 텃밭에 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 무가 자라면 김치도 담가볼 계획입니다.





만종 1857~1859년 55.5cm x 66cm 오르세 미술관 소장

장 프랑수아 밀레

인간의 존엄성을 그린 프랑스의 대표 화가

[JEAN-FRANÇOIS MILLET] 1814 ~ 1875

글 경상남도교육청 학예사 유아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하면 제 아무리 정교한 작품이라도 결코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

프랑스 농민들의 고단한 삶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장 프랑수아 밀레는 초기 전원풍경이나 누드화를 그리기도 했지만, 주로 유화와 크레용, 파스텔을 사용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1849년 밀레는 퐁텐블로 숲의 작은 마을 바르비종에 정착했고, 이때부터 농민 생활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레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만종>은 해질녘 한 남자와 여자가 삼종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오르세 미술관을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종기도는 가톨릭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하루에 세 번, 해질녘에 암송하였던 기도문을 의미합니다. 그의 할머니는 “일하다가도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가난하게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가르쳤고 이를 잊지 않고 그린 그림이 <만종>이라고 합니다.

그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인간’이었고 그의 그림은 소박한 농부와 같았습니다. 농민들의 고된 노동이 지닌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와 경건함, 자연주의적 서정성을 넘어 깊은 종교적 성찰까지 깃든 작품입니다.

학교 건강검진에서

요잠혈 이 나왔어요

아이에게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학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요 검사상 요잠혈 양성' 결과가 나와 혹시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소아청소년과를 찾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잠혈검사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지, 즉 혈뇨가 존재하는지 알기 위한 선별 검사입니다. 직접 소변에서 혈액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에 혈액이 있는 경우 소변과 소변검사 스틱에 있는 물질이 서로 반응하며 나타나는 색깔의 변화로 음성, 약양성 1+·2+·3+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혈뇨가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혈뇨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이유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잠혈 반응이 양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소변 현미경 검사를 통해 직접 적혈구 유무를 관찰해서 혈액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의 경우 요잠혈검사는 양성이라고 나오지만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추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번 건강검진에서도 요잠혈 양성 결과가 나온다면 똑같이 병원을 방문해 요 현미경 검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요 현미경 검사를 시행했을 때 육안적 혈뇨 소견 없이 소변에서 적혈구가 발견된 경우는 현미경학적 혈뇨라고 지칭하며, 이러한 현미경학적 혈뇨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검사 및 정기적인 소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현미경학적 혈뇨를 보일 수 있는 종양, 물콩팥증, 결석 등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및 소변 검사를 시행해 신기능 저하나 혈액응고질환, 특발성 고칼슘뇨증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 유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소아에서 무증상 현미경학적 혈뇨의 빈도는 0.5~4% 정도로 비교적 많은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소변 현미경 검사를 통

해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생활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사구체신염을 의심해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건강검진에서 요단백이든 요잠혈이든 한 가지 결과만 양성으로 나오지만 의미 있는 단백뇨나 현미경학적 혈뇨가 동반되며 신장기능이 감소된다면 사구체신염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장조직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없으며 의미 있는 단백뇨 소견을 보이지 않더라도 육안적 혈뇨의 반복이나 지속적으로 현미경학적 혈뇨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 신장조직검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즉 병력, 가족력, 육안적 혈뇨 여부, 고혈압, 부종, 심부전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사구체신염을 의심해야 하고,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건강검진에서 요잠혈 양성 결과가 나오면 병원에서 소변 현미경 검사를 시행해 현미경학적 혈뇨를 확인해야 하며, 현미경학적 혈뇨가 나온다면 여러 검사를 통해 현재 내과적인 문제나 해부학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로 단백뇨, 현미경학적 혈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재원 과장



진주남강 유등축제의 유래는?

경남역사 이야기

글 배해귀 사진 김정민

해마다 가을이면 진주 남강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진주남강유등축제. 7만 개의 유등이 불을 밝히면 황홀한 세상이 펼쳐진다. 문득 진주에서는 왜 유등을 테마로 축제를 개최한 걸까 궁금해진다.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석장호(53) 기획실장에게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래'에 대해 물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은 경남도청의 '경남공감'과 기사교류를 합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으시면 QR코드를 통해 접속바랍니다.

남강의 아름다운 빛 '진주남강유등축제'

가을이 물들기 시작하는 10월, 진주는 온통 '유등'이다. 축제 기간이 되면 진주교와 천수교 사이 남강에는 다채로운 유등이 형형색색의 빛을 뽐낸다. 짙은 어둠에 둘러싸인 밝은 불빛이 마치 하늘의 별을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난 1949년 개천예술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는 영남예술제라 불렸고, 1955년 영남예술제 6회 때 처음으로 유등대회라는 행사가 열렸죠."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총괄하고 있는 석 실장은 약 65년 전부터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행사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개천예술제를 준비하던 이들이 1996~1998년 사이 개천예술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선진 축제 탐방도 다녀오고, 전문인들을 모셔 토론회도 열었지요. 그리하여 개천예술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등을 특화해 유등축제를 만들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후 개천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유등놀이가 2002년 10월 대규모 유등축제로 발전됐다.

임진왜란 때 진주를 밝혔던 유등

그럼 '진주에서는 왜 유등으로 축제를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왜 진주성 앞 남강에서 유등을 밝히며, 그 기간도 10월일까? 그 답은 지

금으로부터 429년 전 임진왜란에 있다. "1592년 10월,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성 전투때 였어요. 당시 진주성은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왜군이 진주성으로 들어오려 했죠. 이에 진주성에 있던 조선군들이 성 밖의 의병 등 지원군과 연락하기 위해 풍등을 날리거나 남강에 유등을 띄워 군사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조선군이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의 역할도 함께 했다. 그것이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시초가 됐다. "진주대첩을 승리로 거둔 이듬해인 1593년 6월에 진주성은 10만 왜군에 점령당했어요. 현재까지 진주 사람들은 이 일을 계사순의로 기리고 있으며, 당시 순절한 7만의 민·관·군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유등을 띄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주성 전투에서 군사 신호로 사용되던 유등을 후세에 이르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유등축제는 12월에 개최

2021년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오는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에는 태풍이 왔는데, 그걸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또 11월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 축제가 열리는 12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연말을 맞이하여 유등이 희망의 빛으로 2022년 새해맞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0~2011년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고, 2011년 세계축제협회가 주관하는 피너클어워드에서 금상 3개, 동상 1개를 수상하기도 한 진주남강유등축제.

'이제 명품 축제로 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오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힌 석 실장 포부가 이뤄지길 응원한다.



진주문화예술재단 석장호 기획실장

이 한 컷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당시 경남대학교 학생들의 데모를 막기 위해 100여 명의 경찰기동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모습

부마민주항쟁의 부마는 부산과 마산을 뜻하는 것으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 지역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대항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부산에서 시작된 항쟁이 마산으로 퍼졌으며 유신독재 최초이자 최대의 시민항쟁이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부르짖는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함성은 18년간 이어졌던 군부독재가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부마민주항쟁의 10월 정신은 이듬해 5월 광주까지 이어졌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계승돼 이 땅에서 군부독재를 영원히 몰아냈다. 학생과 시민이 직접 민주화에 앞장섰던 그때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은 국가기념일이 됐다.

사진 제공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경남교육가족에게 권하는 10월의 책

1 노력의 기쁨과 슬픔

교육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올리비에 푸리올 지음 | 다룬 | 2021



맨에게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한계와 인간다움을 깨닫고 최고가 되기 위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었다.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신께 맡기라 87p

생각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프랑스 철학자 올리비에 푸리올은 서로 상반되는 듯한 노력과 여유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이 책에 담았다. 노력은 과연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 1만 시간의 법칙은 맞을까? 그에 따르면 일부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다. 때로는 비생산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거나 나태해지란 뜻은 아니다. 불필요한 노력을 그만두고, 자기다운 태도와 속도로 하던 것을 그냥 하라고 말한다. 노력의 각박함에 균열을 주기에 초반만 읽어도 유용하다. 다소 난해한 프랑스식 사유까지 체험하고 싶다면 끝까지 쭉욱 읽어보길 권한다.

2 내가 지워진 날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리사 톰슨 지음 | 블랙홀 | 2021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이제는 안다. 아버가 싫어하던 회사를 떠난 것도, 누나가 역사를 좋아하는 자신에게 따뜻한 것도, 하워드 선생님과 헉슬리 선생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것도 다 내가 있어서였다. 324p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 우리 모두 그렇다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 소문난 골칫덩어리인 맥스웰은 개교기념 100주년 행사에서 대형 사고를 터뜨리고 모두의 빈축을 산다.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두 더 행복했으리라 한탄하던 중 마법처럼, 세상에서 내가 지워졌다! 자신이 사라지고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며 맥스웰은 본인도 누군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 모두 그렇다. 어느 날 문득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맥스웰의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가 관계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 응원해 줄 것이다.

3 새 지폐에는 나를 넣으시오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이광희 지음 | 주니어태학 | 2021



여러 독립운동가의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220p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내일로 이어준 독립운동가들

현재 통용되는 대한민국 화폐에는 독립운동가가 없는데 만약 10만 원권 새 지폐를 만든다면 누구를 놓어야 할까? 여덟 명의 후보를 엄선한 이 책은 단순히 위인들의 업적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오까지 함께 제기함으로써 각 인물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독립운동가 8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임시정부 수립부터 대한민국 건국까지의 한국사 지식이 자신도 모르게 쌓인다. 100년 전 그들이 꿈꾸던 나라에서 현재의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생각하게 하고 독립운동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책이다.

4 모두가 원하는 아이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위해준 글, 하루치 그림 | 웅진주니어 | 2021



“고모가 나를 위해 설계한 맞춤 버튼을 시뮬레이션해 봤어. 원래의 나보다 목적의식도 분명해지고, 인내심도 강하고, 충도 더 잘 추고, 멋지더라. 근데 그건 내가 아니잖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싫어. 내 힘으로 더 나아지고 싶어.” 68-69p

모두가 원하는 나? 아니, 내가 원하는 '진정한 나!'

작은 버튼 하나로 어제와 완벽히 다른 내가 될 수 있다는 폭발적인 인기의 '정신성형'. 주인공은 친구 치치와 새미래 정신성형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버튼을 체험 중이다. 하지만 정신성형으로 변할 내 모습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인지 고민이 점점 깊어져 가고, 우연히 연구소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곳을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버튼을 누르는 쉬운 길이 아닌 스스로 성장하는 '진정한 나' 찾기를 선택한 주인공과 친구들. 모두가 원하는 아이가 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을 그 모험을 함께해 보는 건 어떨까?

5 괴물들이 사는 궁궐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무릎 글·그림 | 노란돼지 | 2021



궁궐 하늘에 봉과 황이 춤을 추며 날았어. 봉황은 기본 일을 가져다주는 괴물이야. 봉황의 맑은 기운이 궁궐에 큰 복을 가져다줄 거야. 36p

옛날 옛적 궁궐에 신기한 재주를 가진 괴물들이 있었다

평소 못된 짓만 해 새로 지은 궁궐에 초대받지 못한 두역시니는 나쁜 요괴들을 불러 모아 궁궐로 쳐들어간다. 문 앞에 터를 잡은 해치를 따돌리고 궁궐로 들어가 천지로 날뛰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 일당은 근정전을 지키는 사자의 기상에 놀리고 연못에서 나타난 용에게 호되게 당한다. 두역시니 무리가 해집고 다닌 동선을 쫓다 보면 수백 년 넘게 궁궐을 지켜온 수호신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정문은 광화문이고, 가장 큰 마당이 있는 곳은 근정전, 연못 위에 자리 잡은 건물은 경회루라는 경복궁 곳곳에 관한 지식은 덤이다.

※ 본 추천도서 요약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연구단체인 경상남도교육청공공도서관연구회 지정연구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Fixbay)



드라마
아프가니스탄, 일본, 아일랜드
국내 개봉 2006년
12세 이상 관람가

감독 세디그 바르막

출연 마리나 골바하리(오사마), 아리프 헤라티(에스판디),
주바이다 사하르(어머니)

수상 2003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 부산국제영화제 관객상
2004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가슴 시리도록 아프고 안타까운
아프가니스탄 여성이여!**

영화 포스터에는 슬픈 눈을 한 소녀 얼굴과 함께 ‘이제부터 넌 남자란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소녀의 이름은 레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를 비롯해 남자 가족은 전쟁에 나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레이나의 어머니가 병원에 나가 물려 일을 했지만, 탈레반 정권이 병원을 닫아 버려 그 일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여자는 남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도, 집 밖으로 나설 수도 없는 탈레반 정권 치하. 어쩔 수 없이 레이나의 어머니는 레이나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아버지 옷을 줄여 입혀 생계를 책임지게 한다. 하지만 남장한 사실이 탈레반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죽음이다 보니 레이나는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기만 한데...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영화

영화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하늘색 부르카를 뒤집어쓴 여인들이 이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한다. ‘정치를 모른다, 우리 배가 고프다,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는 여성들. 하지만 곧 탈레반이 도착하고, 거리는 최루탄과 물대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탈레반에게 잡힌 여성들은 마치 동물처럼 철망에 갇히고 만다. 그 사이를 비집고 아슬아슬 지나가는 레이나와 레이나 어머니. 영화는 이 첫 장면을 통해 탈레반 정권 아래 아프가니스탄 암울한 여성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생계를 위해 남장을 해야 했던 레이나의 비극적인 삶 또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영화의 이야기는 허구지만, 실제로 당시 생계를 위해 혹은 배우기 위해 남장을 해야 했던 소녀들이 있었다고 한다.

**거리에서 구걸하다 배우로 발탁된 배우,
마리나 골바하리**

열두 살 소녀 레이나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었지만, 천상의 소녀처럼 곱고 예쁘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를 지나는 일도, 말하는 것도, 특히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끌려간 학교에서 남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도 무섭고 두렵다. 레이나 역을 맡은 마리나 골바하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어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나 자신이 레이나가 된 듯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조여왔다. 감독을 맡은 세디그 바르막은 폭격으로 가족을 잃고 가난으로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마리나 골바하리의 눈동자에서 레이나를 발견하고 캐스팅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리나 골바하리는 이 영화 이후 많은 영화에 출연했고, 지난 2015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배우 송강호와 함께 개막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알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 <탈레반>

1994년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에서 결성된 이슬람 수니파 무장정치조직으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다. 이슬람 이상주의 국가 건설을 지상 목표로 삼는 탈레반은 급진적인 이슬람 율법 통치를 신봉하면서 여성에게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성이 혼자 외출하는 것, 교육받는 것, 남편 이외의 다른 남성과 말하는 것조차도 금지했다. 심지어 2001년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1,500년 전 간다라 미술 양식으로 세워

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크기의 불상 ‘바미안 석불’을 파괴해 세계인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1년 미국이 9·11테러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해 탈레반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후 이들은 지속해서 세력을 확대했고 급기야 지난 8월 15일에는 수도 카불을 장악하면서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등 연일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마음에 와닿았던 명대사

“나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잊을 수는 없다.”

영화가 첫 장면에 나오는 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백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들끓는 흑인들을 설득하며 했던 말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 왜 이 말을 첫 장면에 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영화는 탈레반 정권 이후 재건된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 만들어진 영화이다. 그랬던 만큼 정권을 쥐고 수많은 인권 침해와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에게 보내는 감독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불안하고 격정스럽기만 하다. 그들이 더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은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

함께 보면 좋은 영화

<파르바나-아프가니스탄의 눈물>(2017)

탈레반 1차 집권 시기(1996~2001)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살아가는 소녀 파르바나의 이야기이다. 파르바나는 딸에게 글을 가르치고 금지된 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대신해 남장하고 가족을 부양하게 된다. 영화 <천상의 소녀>와 비슷하긴 하지만 주인공의 모습이 다르다.

<천상의 소녀>의 레이나는 강제로 남장을 하고 늘 겁에 질려있는가 하면, 이 영화에서 파르바나는 스스로 남장을 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폭력과 억압에 씩씩하게 맞선다. 같은 주제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은 두 영화를 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culture calendar
10
2021
October

- 창원도서관
- 마산도서관
- 김해도서관
-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 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영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각 기관 대표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UN	MON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의 인문학] 사람책,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 10.7~10.28(목) 14:00 별관 I 3강좌실 중·장년층 ● 2021.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수상작 전시 10.1(금)~10.8(금) 1층 로비 지역주민 출발! 도서관 탐험 10.1~10.29(매주 금) 10:30 5~7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초등 저학년 [체험]영어로 배우는 English 10.2~10.23(매주 토) 11:40 1층 유아자료실 유아, 초등저학년 어린이 아장아장 도서관 첫걸음 10.7~10.28(매주 목)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및 동반 가족 ● 향기로운 시(詩) 10.1(금)~10.31(일) 1,2층 계단 아이디어팩토리(3D프린터체험 등) 10.1(금)~10.31(일) 아이디어팩토리 ● '11월 토요일 가족 체험의 날' 신청 10.25~10.27 (월~수) 2015.1.1.~2017.12.31.일생 유아 가족 행사 11.6(토) 09:50 ● 10월 생태체험활동 10.5~10.28(월~금) 9:00~14:40 도내 공.사립 유치원 만3-5세 유아 토요 가족나들이 생태체험활동 10.16(토) / 10.23(토) 9:30~12:00 경남에 거주하는 만3~5세 유아와 가족 	<p>3 개천절</p> 	<p>4 대체공휴일</p>
<p>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족 한 책 읽기 10.10(일) 10:00 3층 더배움 가족 '겨울왕국' 뮤지컬 공연 10.10(일) 16:00 무학전당 어린이를 둔 가족 ● [공연] 땀고의 숨결 10.10(일) 15:00 지혜마루 경남도민 ● 그림책 읽어주는 사서 10.10(일) 14:30 1층 유아자료실 6세~9세 어린이 	<p>11 대체공휴일</p>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신나는 동화구연 10.5(화)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샌드아트 <호랑이와 꽃감> 10.17(일) 11:00 지혜나무 경남도민 [공연] 라틴 소울 10.17(일) 15:00 지혜나무 경남도민 ● [체험]책으로 만나는 다문화 세상 10.17(일) 14:00~ 1층 가락극실 초등 1~3학년 	<p>18</p>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신나는 동화구연 10.19(화)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이랑 아가마중 그림책 대교 특강 10.24(일) 10:30 온라인(ZOOM) 유아 ● [공연] 마음을 담은 클래식 10.24(일) 15:00 지혜나무 경남도민 	<p>25</p>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이 번쩍 귀가 번쩍 신나는 동화구연 10.26(화) 11:00 1층 유아자료실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샌드아트 <너는 특별하다> 10.31(일) 11:00 지혜나무 경남도민 ● (가칭) 가을애(愛)음악회 10.31(일) 17:00 야외무대 기후환경 저자초청강연-1.5도의 미래(윤신영) 10.31(일) 14:00 지혜마루 		

WED	THU	FRI	SAT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 이야기 보따리 10.6~10.27(매주 수) 11:00 3~4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p>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의 인문학' 안상현 작가 강연 -확률이 결정하는 삶 10.7(목) 14:00 일반 ● 신나는 그림책 10.7~10.28(매주 목) ● [인문학교]영화로 읽는 고전문학(1) 10.7(목) 14:00 3층 시청각실 지역주민 	<p>8</p>	<p>9 한글날</p> 
<p>13</p> 	<p>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의 인문학' 객재식 작가 강연 -소설이 현실이 되려면 10.14(목) 3층 무학전당 일반 ● [인문학교]영화로 읽는 고전문학(2) 10.14(목) 14:00 3층 시청각실 지역주민 	<p>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 10.15(금) 13:00 도서관 이용자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이랑 세계 여행-멕시코 10.16(토) 14:00 초등학생 3~6학년 치매극복영화 상영10.16(토) 14:00 도서관이용자 토마토 그림책 놀이 10.16(토) 14:00 유아 ● 맘편한 책읽기 10.16(토) 10:00 온라인 임산부~24개월 자녀 엄마 ● 달마다 책놀이터 10.16(토) 14:00~16:00 온라인 8~10세 저학년 달마다 창작놀이터 10.16(토) 10:00~12:00 온라인 5~7세 유아 [공연] 흥을 돋우는 시간, 리밤바 10.16(토) 15:00 경남도민 ● [인형극]해와 달이 된 오누이 10.16(토) 15:00~ 어린이 및 학부모 [체험]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 10.16~10.23(매주 토) 10:30 유아, 초등저학년 어린이
<p>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의 인문학' 3차 후속모임 10.20(수) 14:00 일반 ● 8번째 고조곤한 낭독회 (김효경 시인) 10.20(수) 11:00 지혜마루 	<p>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의 인문학' 안상현 작가 강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 10.21(목) 14:00 3층 무학전당 일반 ● [인문학교]영화로 읽는 고전문학(3) 10.21(목) 14:00 지역주민 	<p>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힐링 프로그램 - 숨이 있는 정원에 초대합니다. 10.22(금) 15:00 유치원 교사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 인형극 백설공주 10.23(토) 10:00 어린이 포함 가족 마산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10.23(토) 14:00 성인 토마토 그림책 놀이 10.23(토) 14:00 유아 ● [공연] 빛으로, 울림으로 10.23(토) 15:00 경남도민 원데이클래스-테라리움 만들기 10.23(토) 10:00 경남도민 ● 저자 초청강연(김응교) 10.23(토) 14:00 지혜마루
<p>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신중년이 두렵지 않다 10.27(수) 14:00 신중년 ● '길 위의 인문학' 4차 후속모임 10.27(수) 14:00 일반 ● 수요음악회(허쉬밴드) 10.27(수) 11:00 지혜마루 	<p>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한 도서관 이용 꿀팁 10.28(목) 14:00 별관 I 회의실 성인 ● [5060 행복+ 도서관 산책] 내 손으로 만드는 라탄 키링 10.28(목) 14:00~ 5060 신중년 	<p>2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사계절 생태체험 프로그램 10.29(금) 10:00~ 15:00 밀양, 의령 공사업 신청유치원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지역을 여행하는 법 10.30(토) 14:00 성인 토마토 그림책 놀이 10.30(토) 14:00 유아 ● '가을 음악회' 공연 10.30(토) 19:00 3층 무학전당 가족 ● [강연]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 10.30(토) 13:40 구암홀 경남도민 ● [2021년 저자와 함께하는 강연 릴레이] 10월 이미경 저자 초청 특강 10.30(토) 14:00~ 3층 시청각실 청소년 및 일반 [체험]책이랑 놀아요 10.30(토) 11:00~ 1층 유아자료실 6세~9세 어린이 가족

은빛 물결 출렁이는 가을 산

창녕 화왕산 억새 나들이

가을, 억새의 계절이 왔다. 경남은 억새 명소가 많다. 합천의 황매산, 밀양이 재약산과 천황산 등 영남알프스 일원, 의령 한우산 그리고 창녕의 화왕산. 화왕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이자 창녕의 진산으로 가을 무렵이 되면 18.5ha에 달하는 억새밭을 보기 위해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경남 교육 가족도 등산화를 신고 화왕산으로 떠나보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은빛 가을 정취 속에 날려 보내려...



등산코스

코스 01. 자하곡1등산로(전망대길) 3.3km

▶ 자하곡매표소 — 체육공원 — 전망대 — 산불감시초소 — 배바우 — 헬기장 — 서문 — 화왕산 정상

코스 02. 자하곡2등산로(서문길) 2.6km

▶ 자하곡매표소 — 체육공원 — 탱크바위 — 환장고개 — 서문 — 화왕산 정상

코스 03. 자하곡3등산로(도성암길) 2.6km

▶ 자하곡매표소 — 도성암 — 삼거리 — 화왕산 정상

3코스는 쉬엄쉬엄 가기 좋은 길

등산화를 신고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겨 창녕으로 떠난다. 화왕산 등산 코스는 총 3개다. 제1코스인 전망대길은 3.3km로 자하곡매표소에서부터 시작해 정상까지 1시간 50분이 소요된다. 누군가의 말로는 가장 재밌는 길이라고 하는데 등산 초보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바위에 설치된 안전바나 줄을 잡아야 하는 코스가 있어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2코스인 서문길은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다. 2.6km로 최단거리이며 삼림욕장을 지나면 계단이 많아 수월하단다. 다만, 환장고개 코스가 급경사로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 3코스는 도성암길로 2.6km이며 가장 평탄하다. 그들이 많아 가을에 물든 오색 단풍을 천천히 둘러보기도 좋다.



새벽 어스름 낀 억새 평원 장관

화왕산 억새밭의 진풍경은 새벽에 볼 수 있다. 인근의 화왕산 자연휴양림에 숙박을 잡았다면 어스름이 올라오기 전에 올라가야 한다. 움푹한 대평원에 있는 십리 억새밭은 안개에 뒤덮여 십리 호수가 된다. 안개는 억새꽃 사이사이마다 피어오르며 새벽녘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억새에 대한 시 한 편을 떠올리며 안개가 걷힌 아침을 맞는다.

둘러보기 좋은 화왕산 명소

정상부에 도착하면 그야말로 은빛 바다가 출렁인다.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억새는 바람의 노래를 부른다. 억새꽃이 너울 치는 정상에는 약 2.7km에 달하는 석성이 있는데, 5~6세기 가야시대에 축조됐다고 추정되는 화왕산성이다. 임진왜란 당시 광개우 장군이 의병 활동의 본거지로 활용하면서 고쳐지었다는데, 억새의 너스르르한 춤과 낡고 오래된 석성의 조화는 쓸쓸한 가을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정상의 동쪽 외곽에는 드라마 촬영지가 위치한다. 허준 드라마 세트장으로 이용 후 대장금, 왕초, 상도, 조폭마누라, 나는 왕이로 소이다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가 됐다. 환상적인 억새밭 속 촬영지를 구경하면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 봐도 좋겠다.

정상부에는 경상남도기념물 제246호로 지정된 연못 3기와 창녕 조씨 득성비가 있다. 신라 진평왕 때 한림학사 이광옥의 딸이 피부병을 치유하기 위해 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다가 용의 아들을 얻었고, 그가 창녕조씨의 시조가 됐다고 한다.



가을 억새밭

윤홍조

저토록 아름다운 물결을 보았는가
굽이치며 흘러가는 물줄기를 보았는가
굽이굽이 산자락 굴형을 넘어
유유자적 길 떠나는 뒷모습

내를 이루어 흘러가는 물줄기를 보았는가
분분한 세상 소리 소문없이
바람의 발길 따라 몸을 사루는
속 살결 부드러운 물줄기를 보았는가

이부자락 펼친 듯 세상을 감싸며
넘실거리려 흘러가는 비단필의 물결
몸짓 황홀한 물줄기를 보았는가
수많은 발길 환호하며 달려와
호소해 갈구하는 사랑 뒤 두고
기뻐 흘러가는 물줄기를 보았는가
저 가을 억새밭을 보았는가



위드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필요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장규석 의원 (진주)

장규석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힘을 보태는 한편, 경남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도정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장 의원을 만났다.



Q. 경상남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생각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재 경남도정은 김경수 전 지사의 궤위로 인해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된 만큼, 현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도의회가 유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의 삶에서 도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의회 부의장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11대 도의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막바지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해서도 미리 잘 준비해서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의원님의 지역구인 진주 지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A. 진주는 예로부터 문화, 예술, 교육의 중심도시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덧붙여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남부고속내륙철도 조기 개통입니다. 남부고속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서부경남KTX가 조속히 개통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최근 부산시의 불법적인 지리산 덕산댐 건설 움직임에 대해서도 진주지역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 행정을 규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어겠습니다.

Q. 코로나19 시대의 교육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가장 우려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입니다. 아울러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만나 우정을 쌓을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 아쉽습니다. 청소년 발달 과정 측면에서 또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서로 어울릴 수 없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생기는 학력 저하 문제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만큼, 학생들의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미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교육정책을 통해 훌륭한 미래 인재를 길러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뉴스

1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개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정질문 실시, 조례안 심의 등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웅) 제388회 임시회가 8월 31일 ~ 9월 9일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임시회에서는 8건의 5분 자유발언, 3일간 도정질문을 실시하였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4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신영욱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은 반대·찬성토론을 거쳐 표결로 원안 가결됐다.

2

교육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순호)는 제388회 임시회 중 제1~2차 교육위원회를 이틀간 개최해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8건, 수정안 가결 1건)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양극화된 교육격차 문제 해결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5조 5,561억원보다 4,422억 원(8.0%)이 증액된 5조 9,983억 원으로 예산결산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부대의견 10개)됐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말해줘요

옆에 있어 고마운 사람, 다시 보기 어려워 그리운 사람들에게 마음톡을 보내보세요.
친구, 가족, 은사님 등에게 말로 꺼내기 어려운 마음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나는 사계절 중 가을을 가장 좋아한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추석명절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들이 우리 집에 와서 차례를 지낸 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다. 오순도순 모여 앉아 간식으로 여러 가지 과일과 강정, 식혜를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정겹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퍼지고 난 후에는 친척들은 오지 못하고 우리 식구들만 명절 차례를 지내게 돼 조금 쓸쓸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 올해 추석에도 친척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한다.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가장 큰 행사인 소풍과 운동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든다. 소풍과 운동회 때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때가 생각난다. 다행히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예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되면 체험학습이나 견학도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되겠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강수진(김해 율하초등학교)

독자기고



원래는 그냥 잡지 비슷한 거인 줄 알고 그냥 나왔었는데 부모님하고 낱말퀴즈를 풀어보니 재미있어서 독자기고도 하게 되었습니다. 워다 보니 '다채롭데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중간에 영화를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청렴에 대해 설명해주 재미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채식의 날? 같은 거라고 하면 애들이야, 오늘 채식의 날이야 별로 맛있겠지?? 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또는 편견으로 채식의 날은 맛있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남교육 책자를 읽으면서 채식의 날이 우리 건강과 지구환경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또 토론이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생들이 할머니를 부축해드린 내용을 읽고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이 쉽지 않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은 용기를 내서 도와드린 것일 테니까 칭찬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나임(합천여자중학교)



아이좋아 경남교육 9월호를 읽으면서 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탄소 중립',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는 채식 급식, 미래 직업-스마트팜 전문가의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들을 보면서 환경의 중요성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의 실천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오겠지요.

이시윤(장복초등학교)

Quiz Quiz

아이좋아 경남교육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낱말퀴즈

1.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통학안전시스템 명칭은?

2.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나 기존에 있던 말이라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말은?

3. 유화와 크레용, 파스텔을 사용해 농민들의 고단한 삶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프랑스 화가는?

4. 학교 건강검진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신장이나 요관, 방광 같은 소변의 통로가 되는 장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소변에 약간의 적혈구가 섞이는 증상은?

5.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은?

9월 호 정답 : 1.다채롭데이 2.알지오매스 3.오귀스트 르누아르 4.아토피 피부염 5.스마트팜

9월 호 정답자 : 창원 사화초 문서준, 김해 주촌초 김민재, 남해초 한채윤, 사천 남양중 박효진, 통영고 이승민



독자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유기고 '추억의 편지', '보고 싶다 친구야', '보고 싶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성장 이야기', '나의 학창시절은' 등

독자후기 (아이좋아 경남교육)에 바라는 점,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등

형식 자유(시, 수필, 편지글 등)

제출기한 10월 20일까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도란도란 독자기고와 독자 후기, 낱말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름, 연락처,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을 기재해주시면

채택된 분께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51430)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이메일 : gne8@hanmail.net

전화번호 : 055-278-1784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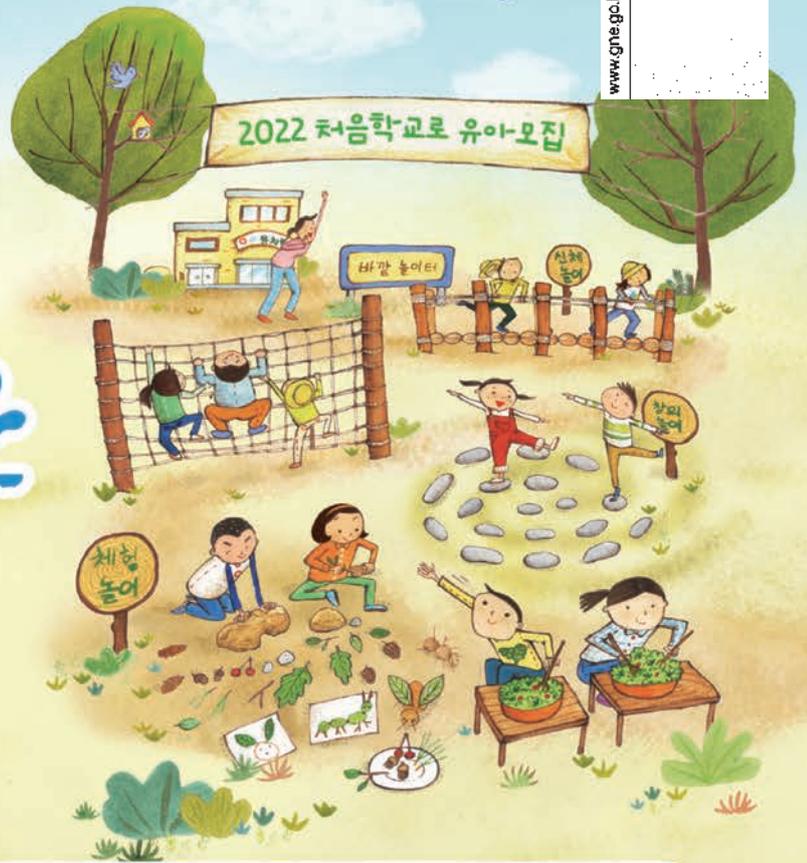
시간(분)	구분	발제 및 토론
13:40~14:00 (20분)	등록	
14:00~14:05 (5분)	개회사	오 경 식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14:05~14:10 (5분)	축사	박 중 훈 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
	좌장	정 희 철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14:10~14:35 (25분)	발제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 정 도 희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14:35~15:00 (25분)	발제 2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예방방안 배 상 균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00~15:10 (10분)		휴 식
	토론 1	강 정 은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5:10~15:40 (30분)	토론 2	신 지 영 경감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토론 3	강 지 명 사무관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15:40~16:40 (60분)		전체토론
16:40		폐회

—
2021. 10. 15. 금요일
PM1:40~4:40

—
실시간 온라인 심포지엄(유튜브 송출)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 유아모집



'처음학교로'는 선착순이 아니라 자동추첨으로 진행됩니다.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는 모바일로 입학업무 전과정 (가입-접수-발표-등록)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주소: <https://www.go-firstschool.go.kr/m>

원서접수 기간 안내

우선모집

• P C: 11.1.(월) 09:00 ~ 11.3.(수) 18:00
• 모바일: 11.1.(월) 11:00 ~ 11.3.(수) 15:00

일반모집

사전접수 • P C: 11.15.(월) 09:00 ~ 23:59
• 모바일: 11.15.(월) 11:00 ~ 23:59

본 접수

• P C: 11.17.(수) 09:00 ~ 11.19.(금) 18:00
• 모바일: 11.17.(수) 11:00 ~ 11.19.(금) 15:00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s://www.go-firstschool.go.kr>) 참고